

『제임스조이스저널』

제30권 2호(2024년 12월) 125-150

<http://dx.doi.org/10.46258/jjj.2024.30-2.125>

『노멀 피플』에 나타난 21세기 아일랜드 사회의 대변화 – 조이스와 비교하여*

최 석 무

I. 서론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소설 『율리시스』(*Ulysses*)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직전의 아일랜드 사회를 잘 보여준다. 20세기 초 아일랜드는 영국과 가톨릭교회가 아일랜드인을 지배하였다고 할 정도로 이 두 세력은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율리시스』 1장 「텔레마코스」(“Telemachus”)에서 스티븐(Stephen Dedalus)은 “나는 두 주인을 섬기는 종놈이야”(U 1.638)라고 말하면서, 그 두 주인은 “영국 제국”과 “신성한 로마 가톨릭 사도 교회”(U 1.643-44)라고 말한다. 두 세력이 아일랜드에서 차지하는 힘은 10장 「떠도는 바위들」(“Wandering Rocks”)에서 구체화 된다. 동 시간대에 일어나는 19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이 장은 아일랜드를 지배하는 두

* 이 연구는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콘미(Connec) 신부와 영국 총독—이 처음과 끝을 차지한다. 조이스는 가톨릭교회를 첫 장면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이라는 정치적 권력보다 가톨릭교회가 아일랜드인에게 더 위협적인 요소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5장 「키르케」(“Circe”)에서 스티븐은 이 두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그의 어머니와 영국 군인과 대적한다. 그는 선량한 가톨릭교도로 살라고 요구하는 어머니에 대한 거부의 표시로 지팡이를 휘둘러 상들리에를 깨뜨린다. 그리고 영국 왕을 욕했다고 해서 영국군인 두 명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카아(Carr) 일병에게 맞아 정신을 잃는다.

21세기 아일랜드 사회는 20세기 초와 다른 큰 변화를 맞는다. 아일랜드는 1922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에 오랫동안 경제침체를 겪다가, 이제는 영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아 ‘켈틱 타이거’(Celtic Tiger)라는 명성을 갖게 된다. 다국적 기업의 성지가 된 아일랜드는 이제 더 이상 영국 경제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 정치적 독립을 이룬 국가들이 경제적 예속으로 인해 또 다른 종류의 식민 지배 상황을 맞는 신식민주의 상황이 아일랜드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가톨릭교회의 위상도 완전히 바뀌었다. 가톨릭 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혼 금지법, 동성 결혼 금지법, 낙태 금지법이 1995년, 2015년, 2018년에 국민투표로 각각 폐지되었다.

21세기 아일랜드 작가들은 가톨릭교회의 문제점을 그들의 작품에서 직접 다룬다. 예를 들어, 윌리엄 트레버(William Trevor)는 2005년에 발표한 단편소설인 「아일랜드의 남자들」(“Men of Ireland”)에서 가톨릭 신부의 성 추문이나 비행 행위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보여준다. 어릴 적 교회의 사동으로 일한 청년이 신부의 사소한 일탈을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는데, 신부는 그 청년의 말이 거짓임을 알지만 “침묵의 대가”(467)로 돈을 준다. 그 청년은 또한 다른 “신부의 아기를 임신한”(465)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부의 만연한 도덕적 타락을 조롱한다. 21세기 아일랜드는 가톨릭교회에 대한 권위가 사라져 과거 신부의 비행을 폭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죄가 없는 신부도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다. 아일랜드 사회에서의 가톨릭교

회의 위상은 클레어 키건(Claire Keegan)의 『이처럼 작은 것들』(*Small Things Like These*)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작품은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막달린 세탁소(Magdalene Laundries)의 만행을 고발하여 가톨릭교회의 문제점을 전면에서 다루고 있다.

2018년에 출판된 샬리 루니(Sally Rooney)의 소설 『노멀 피플』(*Normal People*)은 시간적 배경 면에서 전혀 다르다. 이 소설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21세기에 출판된 다른 아일랜드 소설과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출판된 키건의 『이처럼 작은 것들』은 그 배경이 1990년대이다. 아일랜드 작가들은 21세기에도 특히 아일랜드 경제위기가 닥쳤던 2007년까지 “주로 역사소설을 썼고 박탈, 이민, 농촌의 빈곤, 기근, 가톨릭교회의 권력을 다루었다”(Justine Jordan). 즉, 오랫동안 아일랜드인을 억압한 영국이나 가톨릭교회 문제가 여전히 아일랜드 작가들을 괴롭히는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작품을 통해 과거의 억압과 고통을 폭로하면서도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담고자 하였다. 2007년 이후에도 『이처럼 작은 것들』에서처럼 가톨릭교회의 문제를 다룬 작품도 있지만, 이와 다른 양상을 다룬 작품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루니는 그 대표적인 작가로 그의 소설은 “전혀 새로운 작품으로 새천년 소설의 등장”을 의미한다(Barry). 작가가 말하듯이, 그의 소설은 “금융위기에 의해 생성된 문화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켈틱 타이거’ 시대가 끝나자 사회비판의 시대가 엄중하게 왔고, 이로 인해 국민투표와 같은 변화를 보게 된다”(Charman). 사회 변화는 루니와 같은 새로운 관심사를 가진 작가를 배출한다. 그는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인물이 당면하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다룬다. 특히, 『노멀 피플』은 “미래의 고전”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작품으로(Clanchy), “시대정신을 표현한 소설”(zeitgeist novels)로 시대의 불안감을 반영한 작품이다(Cain).

조이스 이후의 아일랜드 작가들은 오랫동안 조이스 작품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들의 작품이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조이스가 아일랜드 문학에 미친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조이스의 소

설, 특히 『율리시스』에서 20세기 초 아일랜드의 사회의 주요 담론이라 할 수 있는 인종/국가, 종교, 성적 정체성, 계층 등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보고, 『노멀 피플』에서 이러한 담론들이 21세기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인종/국가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스』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인에 의해서 지배 및 차별받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1장 「텔레마코스」에서 영국인인 헤인즈(Haines)가 스티븐이 방세를 낸 마텔로 탑에 그의 허락 없이 기거하는 것은 영국의 아일랜드 식민화를 상징한다. 10장 「떠도는 바위들」에서 영국 총독의 행차는 영국 왕의 대리자로 아일랜드를 통치하고 있는 그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12장 「키클롭스」(“Cyclops”)에서 시티즌(Citizen)은 영국의 아일랜드 약탈의 역사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격분한다. 조이스는 작품 여러 장면에서 아일랜드에 체류하는 영국인의 모습과 아일랜드의 과거 역사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과거 역사에 집착한다. 이는 식민 작가로서의 그의 작가적 정체성의 표현이다.

『노멀 피플』에서는 이러한 아일랜드 과거 역사나 아일랜드와 영국의 갈등 관계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조이스는 제국의 중심인 런던에서 활동하고 싶은 아일랜드인의 소박한 꿈을 보여준다. 「작은 구름」(“A Little Cloud”)에서 만 섬(Isle of Man)에 간 것이 외국 여행의 전부인 찬들러(Chandler)에게 갤러허(Gallaher)는 “런던이나 파리”(D 71)에 가보라고 권하지만, 이는 찬들러에게는 실현되기 어려운 꿈이다. 『노멀 피플』에서 아일랜드인은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남자 주인공인 코넬(Connell)과 그의 친구들은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본토를 여행한다. 한때 코넬의 여자 친구였던 헬렌(Helen)은 여름에 미국 시카고에 머문다(NP 156). 작품 끝에서 그의 연인이 되는 매리엔(Marianne)은 트리에스테 외곽

에 있는 별장에 머물기도 하고(NP 157), 교환학생으로 스웨덴에 가기도 한다. 21세기 아일랜드 대학생에게 영국은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니며 전 세계가 그들의 관심사이며 활동 무대다. 아일랜드는 코넬과 같이 가난한 학생도 장학금을 받아 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풍족한 나라이다.

『울리시스』에서 등장인물들은 아프리카에서의 인종 차별과 착취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는 그들이 영국인으로부터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12장 「키클롭스」에서 조이스를 대변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J. J.는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저지른 만행에 관해 이야기한다.

만약 [영국인]이 콩고 자유국에서 벨기에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면 정말로 나쁜 사람이지. . . . 여자들과 소녀들을 강간하고, 원주민들의 배를 때려서 가능한 한 많은 붉은 고무를 짜내려고 했지. (U 12.1542-47)

아프리카에서의 영국인의 만행은 조이스 당대의 아일랜드인이 공유하는 공통관심사지만, 『노멀 피플』에서 아일랜드 학생들은 과거나 현재의 인종 차별 문제에 관심이 없다. 매리언이 코넬에게 빌려주는 제임스 볼드윈(James Baldwin)의 『다음엔 불』(*The Fire Next Time*)이란 책은 미국에서의 인종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코넬은 자신의 친구들은 “그들만의 흥밋거리가 있다. 인종 차별을 다루는 책은 읽지 않는다”(NP 14)고 말한다. 이에 매리언은 “그들은 누구와 성관계를 했는지 사랑하느라 너무나 바쁘다”(NP 14)고 말하면서 요즘 아일랜드 남성의 관심사를 비판한다.

조이스 시대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인에 의해 차별받는 약자이지만, 루니의 시대에는 약자가 아니라 인종 차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인종적인 편견은 제이미(Jamie)와 같이 매리언에게 폭력적 언행을 일삼는 인물에게서 볼 수 있다. 그는 “파시스트”이면서 “남성 우월주의자”(NP 139)로 매리언과 논쟁하는 중에 잔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는 베니스는 “모든 것을 사진 찍는 아시아인으로 가득 차 있다”(NP 176)는 이유를 들면서 베니스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말에 대해서 나이얼(Niall)은 “아시아 사람들을 그렇게 평하는 것은 인종차별적 발언”이라고 이의를 제기한다(NP 176). 제이미를 제외하고 인종차별적 시각을 가진 인물은 없고, 오히려 아일랜드 사람들이 약자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매리앤과 코넬의 친구들처럼 아일랜드 사람들은 “약자에 대해 강자가 휘두르는 폭력”에 반대한다(NP 228). 예를 들어, 그들은 팔레스타인의 “가자(Gaza) 지구에서 행해지는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NP 228)에 참여한다.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은 차별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 차별에 대해 비판하는 태도를 보인다.

『노멀 피플』에서는 영국이 더 이상 적대 국가로 등장하지 않고, 영국과 아일랜드가 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아일랜드인들이 영국 축구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노멀 피플』에서 성탄절에 코넬 가를 방문한 “십 대 소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셔츠(United jersey)”를 입고 있다(NP 260). 코넬은 슬라이고(Sligo)에 있는 자신의 방 벽에 영국 축구선수인 “스티븐 제라드(Stephen Gerald)의 포스터”를 걸어놓고 있다”(NP 223). 아일랜드에서는 프로 축구 리그가 없기에 젊은이들이 영국 축구팀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축구선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축구 선수의 포스터를 방에 걸어두는 코넬을 기존의 적대적인 영국/아일랜드 관계의 해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영국과 아일랜드는 스포츠 문화를 공유하는 등 기존의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루니는 모든 종류의 인종 차별에 반대한다. 코넬은 더블린에서 매리앤의 첫 남자친구인 개러스(Gareth)가 신나치주의자를 초대한 토론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비판한다. 코넬이 개러스를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자”라고 비난하자, 매리앤은 그녀의 남자친구는 단지 “자유 연설”을 좋아할 뿐이라고 옹호한다(NP 80). 이에 코넬은 개러스를 마틴 루서 킹(Martin Luther King)이 말한 “백인 온건론자”(white

moderates)(NP 80), 즉 완전한 인종 차별론 자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인종 차별론자도 아닌 사람이라고 비판한다.

오랫동안 토착 아일랜드인과 정착민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신교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트리니티 대학(Trinity College)에 대한 시각도 주목할 만하다. 조이스 시대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톨릭교도들은 이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다. 『율리시스』는 트리니티 대학 학생들이 “보어 전쟁과 같은 대영제국의 정책에 반대해서 시위하지만, 대영제국이 위협에 처해 있을 때는 서둘러 입대”할 정도로 이 대학이 친영과 양성 교육기관임을 보여준다(Choi 147). 『노멀 피플』에서 코넬이 트리니티 대학에 가겠다고 결심하자,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두 기뻐한다. 할머니는 코넬에게 “왜 트리니티에 가려고 하니?”라고 질문한다. 코넬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할머니는 “비웃음”(NP 47)을 짓는데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할머니와 같은 구세대만 트리니티 대학에 대해서 반감이 있음을 보여준다.

『노멀 피플』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아일랜드 사람들은 인종 차별을 반대하지만, 오랫동안 인종 차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검은색(black)은 부정적인 인물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스웨덴에서 매리앤이 사귄 루카스(Lucas)는 금발의 백인이지만 변태성욕자인데, 그는 “검은 셔츠, 검은 지프가 달린 후드 티, 검은 가죽 바닥의 검은 부츠를 신고 있어 온통 검은색으로 치장하고”(NP 188)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고등학교 시절에 매리앤과 코넬은 학교에서는 서로 아는 척도 하지 않지만, 방과 후에 은밀하게 만나는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한다. 그의 집에 그녀가 처음 방문할 때 그녀는 “검은 스웨터, 회색 치마, 값싼 검은 속옷”(NP 19)을 입고 있다. 검은색은 그들의 은밀한 만남을 상징한다. 반면에 흰색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매리앤이 “하얀 드레스와 하얀 작은 도자기 컵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코넬]은 ‘당신은 천사처럼 보여’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NP 163).

검은색/흰색의 상징적 의미를 파과한다는 점에서 조이스는 21세기 작가 루니보다 혁신적인 작가이다. 조이스는 검은색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

용한다. 『율리시스』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블룸과 스티븐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다. 특히, 이슬람교도인 아베로에스와 모세 마이모니데스(Averroes and Moses Maimonides)는 “외모와 행동에서 어두운 사람들”(U 2.158-59)이며, 그들은 “밝음이 이해할 수 없는 밝음 속에서 빛나는 어둠”(U 2.160)이라고 묘사된다. 이날 경마에서 다크 호스(dark horse)인 스로우어웨이(Throwaway)가 우승하고, 블룸도 “다크 호스”(U 12.1558)라고 불린다. 이런 비유를 통해 조이스는 밝음/어둠, 흰색/검은색이 표방하는 전통적인 이분법에 도전하면서 피부색에 따른 인종 차별을 거부하는 글쓰기를 한다.

III. 종교

『율리시스』 시작 부분은 조이스의 가톨릭교회에 대한 견해를 잘 보여 준다. 멀리건(Mulligan)은 십자가를 상기시키는 “거울과 면도날이 교차한 채 놓여 있는 거품 그릇”(U 1.1-2)을 들고 미사 구절을 암송하며 신부행세를 하면서 등장한다. 스티븐은 1장 끝에서 신부행세를 하는 멀리건을 “찬탈자”(U 1.744)로 규정하는데 이는 가톨릭교회가 아일랜드인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시사한다. 『율리시스』 첫 장에서 이렇게 묘사된 가톨릭교회는 소설 전체에서 작가의 주된 비판 대상 중의 하나이다. 가톨릭교회는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한 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신적·영적 영역에 국한되어야 하지만, 아일랜드 가톨릭교회는 정치, 사회적으로 큰 힘을 발휘한다. 조이스는 독립 이후에 아일랜드에서는 “자유가 더 없어졌다”(Power 169)라고 말하면서 가톨릭교회의 과도한 권력 행사를 비판하였다.

루니는 마이클 놀란(Michael Nolan)과의 인터뷰에서 아일랜드에서는 “가톨릭교회의 권력이 쇠퇴하였다”고 단언한다. 이러한 작가의 인식을 반영하여 『노멀 피플』에서는 조이스 시대의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을 찾기 힘

들다. 교회에 가는 교인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 코넬과 그의 어머니는 “미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 그는 예전에 장례식 때문에 교회에 간 적이 있을 뿐이다”(NP 127-28). 매리앤은 “일요일에 미사에 가도록 강요”(NP 32) 받아 교회에 간다고 묘사되어 있을 뿐 신앙심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낙태 반대는 이혼 반대와 더불어 가톨릭 신앙의 핵심으로 여겨져 오랫동안 아일랜드 사회를 지탱한 원천이면서도 사회갈등의 원인이었다. 낙태는 2018년에 마침내 합법화되는데, 배경이 2014년인 『노멀 피플』에서 낙태는 여전히 불법이다. 그렇다고 여성들이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코넬은 매리앤이 임신하면 자신이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그녀와 함께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NP 103). 낙태가 아일랜드에서는 불법이기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은 비행기를 타고 영국 등가 가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가톨릭 신앙심이 없는 코넬의 어머니 로레인(Lorraine)은 낙태 반대를 “퇴보적인 정치적 견해”(NP 244)로 규정하면서 낙태에 찬성한다.

루니는 종교적 의미를 가톨릭 교리가 아닌 주인공의 모습에서 찾는다. 성탄절에 사촌 동생과 게임을 하는 코넬의 얼굴을 “거의 종교적인 강렬한 인상”(NP 260)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한다. 특히 매리앤을 종교적으로 신성한 존재로 묘사한다. 그녀는 더블린에 가서 코넬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 자신이 “신성한 제단 같다고 생각한다”(NP 93). 코넬은 아버지 기일을 기리는 미사에서 슬픈 모습을 하는 매리앤이 “종교적인 그림”(NP 128) 같다고 말한다. 코넬은 여자 친구인 헬렌과 함께 있을 때도, 매리앤이 “빛을 등지고 문지방에 서 있는 모습”(NP 170)을 생각한다. 매리앤의 모습은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애러비」(“Araby”)에서 맹건(Mangan)의 누이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루니는 조이스처럼 숭배하는 여인을 성인처럼 성호를 가진 존재로 묘사한다. 구체적으로 매리앤은 성모 마리아를 상기시킨다. 그녀의 옷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다고(immaculate) 묘사되어 있는데 “immaculate”(NP 161)라는 단어는 그 의미는 달라도 성모 마리아를 묘사하기 위해 흔히 사용된다. 매리앤은 또

한 하얀 옷과 모자를 쓰고 있어서 “천사”(NP 163)에 비유된다.

조이스 시대에 가톨릭교회는 아일랜드 사람들을 억압하는 절대적 권력이었지만, 루니의 시대에는 권력기관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적 세계관이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다. 루니는 『노멀 피플』에서 인물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종교적 및 가톨릭 용어를 사용하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여전히 깊숙이 스며있는 가톨릭적 세계관을 은연중에 담고 있다.

IV. 성적 정체성

조이스는 성의 문제를 과감하게 작품 전면에 도입한 혁신적 작가이다. 『율리시스』는 20세기 초반기의 작가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성적 표현이나 묘사로 가득해 음란성 때문에 미국에서 재판권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조이스가 제시한 성 정체성 담론은 당대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다. 동성연애는 『율리시스』에서 되풀이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지만,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묘사된다. 동성연애는 “와일드(Wilde)의 사랑”으로 “감히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사랑”(U 3.451, 9.659)으로 정의되고 반복해서 제시된다. 오스카 와일드가 1895년에 동성애로 재판을 받고 2년간 투옥된 사건은 20세기 초에 강력한 반동성애 담론을 형성했다. 국립도서관에서 블룸이 멀리건과 스티븐 사이를 지나가자, 멀리건은 “방랑하는 유대인이네. 자네 저 사람의 눈을 보았나? 너를 탐하듯 바라보고 있었어”(U 9.1209-10)라고 말한다. 블룸이 스티븐을 염려해서 보내는 눈길을 멀리건은 농담 삼아 동성애적으로 해석한다.

라베이트(Rabaté)가 주장하듯이, 조이스는 “당대의 반동성애 담론에 집착하고 있지만, 동성애를 비난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43). 예를 들어, 조이스는 자신의 분신일 수 있는 주인공 블룸이 동성애자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가슴이 흰히 보이는 아내 몰리의 사진을 블룸이 스티븐에게 보여주

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여성을 공유하려는 욕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올리시스』에서 블룸이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15장 「키르케」의 환상의 세계에서 블룸이 여성이 되어 아기를 출산하고, “양성애자로 비정상인”(U 15.1775)으로 등장하지만, 이는 환상의 세계에서만 가능하다. 블룸은 환상의 세계가 끝이 나자 원래대로 남성이 된다. 20세기 초에 남성의 여성화나, 동성애, 양성애는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성적지향으로 환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가톨릭 교리는 “동성애는 변태적이고 나쁜 것”이고 “이성애가 정상적인 것”(heteronormativity)으로 규정하였는데(M. Jordan 90), 가톨릭 교육을 받은 조이스도 이러한 성담론에 근거해서 작품을 썼다.

루니는 이성애 중심주의를 철저히 부정한다. 『노멀 피플』에서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가톨릭적 성 정체성이 도전받는 21세기 아일랜드 사회의 모습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서 이성애는 더 이상 당연한 전제가 아니다. 고등학교에서 매리앤은 친구가 하나도 없는 외톨이기에 “아무도 그녀가 남자를 좋아하는지 여자를 좋아하는지 모른다”(NP 6)고 화자는 말한다. 또한 학생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길리안(Gillian)은 코넬과 상담을 하면서 “현재 여자 친구(girlfriend)나 남자친구(boyfriend)”(NP 208)가 있는지 물어본다. 학생 상담소에서도 이성애가 더 이상 표준이 아니다. 이 작품은 이성 커플인 코넬과 매리앤의 관계가 주된 이야기이지만, 동성 커플도 등장한다. 매리앤에게 “진짜 행복”(NP 228)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이는 동성 커플인 조애너(Joanna)와 에블린(Evelyn)이다. 매리앤은 “그들을 함께 보게 되거나, 조애너가 에블린에게 ‘알았어, 사랑해, 나중에 봐’라고 쾌활하게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어 행운이라고 느낀다”(NP 227). 매리앤의 어머니는 두 아이를 낳았지만, 동성애자로 보인다. 코넬은 그녀의 어머니가 어떤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여성을 “남자친구”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불러야 할지 고민한다(NP 112). 코넬은 매리앤에 비해서 동성 커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코넬은 더블린에 갈

것을 결정하면서 그곳에서의 생활은 여러모로 고향 슬라이고와 다를 거라 예상한다. 그중에서 그가 더블린에서 만나게 되는 여성의 성적 정체성이 보수적인 고향에서와 달리 양성애자(bisexual)(NP 26)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도시일수록 전통적인 성적 정체성을 고수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변태 성욕은 이 작품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문제이다. 매리엔은 비정상적인 여성으로 취급받는데 성적인 면도 그러하다. 그녀는 “코넬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NP 12). 그녀는 이러한 생각이 “그녀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NP 12). 그녀의 이러한 면은 마조히스트(masochist) 적인 성향으로 이는 블룸과 흡사하다. 블룸은 보일런(Boylan)이 아내 몰리와 성관계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키르케」의 환상의 세계에서 보일런이 몰리와의 불륜 현장을 “열쇠 구멍”(U 15.3788)을 통해 블룸이 볼 수 있게 허락하자, 블룸은 감사를 표한다.

조이스와 루니의 다른 점은 조이스의 블룸은 환상 속에서 마조히스트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루니의 매리엔은 마조히스트적인 성향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에 마조히스트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성적지향으로 루니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제이미는 “사디스트”(sadist)로서 “성관계 시에 매리엔을 때리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매리엔은 말한다(NP 131). 매리엔의 이러한 변태적 성행위는 그녀가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제이미에게 “복종하고 싶다”라고 말한다(NP 132). 그녀의 이러한 변태 성향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코넬과의 성관계 시에 없었다. 더블린에서 그들이 마침내 다시 결합하게 되고 성관계를 할 때도, 매리엔은 마조히스트적인 성향을 보인다. 코넬이 매리엔의 손에 키스하자, 그녀는 “그의 힘의 무게 때문에 기분 좋게도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고,” 그가 그녀 앞에 서자, “모든 신경이 곤두선 채 짐승처럼 가만히 있다”(NP 235). 그리고 코넬에게 “날 때려 줘?”라고 요구한다(NP 237).

매리엔이 어떻게 마조히스트가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리오

(María Amor Barros-Del Río)는 ‘켈틱 타이거’로 대변되는 아일랜드 경제가 붕괴되는 시기에 “젠더가 양극화”되어 “사랑이나 성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지배를 포함하는 종속관계”가 나타난 결과라고 말한다(2). 여성이 마조히스트일 때 이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작품에 제시된 상황을 통해 두 개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코넬은 오랫동안 매리언이 순응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했다.

[코넬]은 고등학교 때부터 [매리언]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파악했다. 그녀가 그의 시선이나 손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붉어졌는지를, 그리고 그녀가 어떤 구두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멈춰 서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는 무적처럼 보이는 그녀에 대한 그의 손쉬운 폭정. 마치 미래에 사용될 빈집의 열쇠처럼, 그는 이 지배력을 잃는다는 생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실 그는 그 지배력을 키워왔고,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NP 248)

이처럼 코넬과 매리언의 관계는 일종의 권력관계로 전자는 힘이 있고 후자는 힘이 없다. 코넬은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로 그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은 이 사실을 “학교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성에게 인기가 많고 친구도 많다(NP 21). 반면에 매리언은 눈이 “깜박이는 컴퓨터 커서”처럼 이상하게 생겼고 친구도 없다(NP 9). 코넬도 그녀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녀가 “학교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알고 있다(NP 24). 코넬은 매리언과 비밀 연애를 고집하여 학교에서 그녀를 모르는 척한다. 특히 졸업 파티에 매리언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NP 29) 레이첼(Rachel)을 파트너로 데리고 가는 그의 행동은 매리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사랑받을 수 없는 실체 및 성격의 증거”로 작용한다(Pierini 150). 대학교에 들어간 후 코넬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만, 매리언의 마조히스트 적인 성향은 이미 굳어진 상태이다.

둘째, 매리언은 폭력적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폭력적인

사람으로 매리엔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때로는 매리엔에게 손찌검을 했다”(NP 43). 매리엔은 또한 남동생 앨런(Alan)의 폭력적인 행동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다. 2014년 7월에 그녀는 앨런의 폭력에 코뼈가 부러져 피가 나서 코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되풀이되는 육체적 폭력 때문에 그녀는 힘을 가진 자에게 순응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코넬은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면서 “그녀에 대한 자신의 힘”을 확인한다(NP 252). 그녀의 이러한 면은 그녀의 성적 취향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앨런은 약자인 매리엔에게 힘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연약하다. 그는 “다른 사람에겐 항상 아첨하는 모습”을 보인다(NP 59). 매리엔에게 행사한 폭력에 대해서 코넬이 그에게 책임 추궁을 하자, 그는 “작아 보이고 겁에 질린 모습이다”(NP 251). 그리고 어머니를 부르거나 울기까지 한다(NP 252).

앨런의 폭력이 일어난 지 7개월 후에 일어난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매리엔의 성적 취향은 유지되지만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코넬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리엔]이 기꺼이 순응하게 할 수 있다”(NP 258).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녀를 복종하게 하거나, 유약하게 하거나, 힘이 없게 하거나, 때로는 눈물짓게 할 수 있다”(NP 258). 이 소설은 비정상적인 취급을 받는 매리엔이 마침내 “정상적인 사람”(NP 254)으로 취급받는 이야기이지만, 그녀의 성적지향은 변하지 않는다. 즉, 마조히스트가 오늘날 지배적인 성적지향자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녀는 여전히 마조히스트지만, 이러한 성적지향에서 폭력성만 제거된다. 그녀의 성생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멘디아(Mendía)가 지적하듯이, 이는 “여성이 현재의 사회적 위치를 혼자 힘으로 없앨 수 없다는 것”과 “더 많은 사회적, 사고방식의 변화가 요구됨”을 시사한다(158).

『노멀 피플』을 성적지향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매리엔의 생각을 묘사한 다음 구절은 마조히즘을 합리화한다.

어떤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에 완전히 놓여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지만 또 얼마나 평범한 일인가. 아무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독립할 수 없으니, 그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 어떨까. . . . 반대로 달려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의지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NP 262)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있기에 마조히즘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매리엔은 생각한다. 그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존하게 하여 평등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로 마조히즘을 합리화하려 한다. 작가 루니는 마조히즘을 벗어나거나 치료를 요하는 변태적 행위가 아니라, 다양한 성 정체성 중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V. 계층 갈등

1930년대에 칼 래텍(Karl Radek)과 마르크스주의(Marxist) 비평가들은 조이스의 작품, 특히 『율리시스』는 부르주아 계층을 다루고 있어 노동자 계층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조이스는 자신의 작품은 “중하류층, 그리고 노동자 계층도 다루고 있고, 그들 모두는 무척 가난하다”라고 반박한다(Segall 422, 재인용). 조이스의 이런 주장처럼 조이스의 작품에는 가난한 인물이 등장한다. 더블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외발의 선원과 몇 фун의 돈을 위해 스티븐의 책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그의 여동생의 비참한 삶 등을 보면 조이스가 하층민의 삶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티븐 여동생의 비참한 삶과 달리 스티븐의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다. 스티븐은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지만, 이날 급료로 받은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다. 그는 불륨이 아니었다면 흥등가에서 과도한 돈을 지불할 뻔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그는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고

민 없이 이날 디시(Deasy) 교장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다. 광고 외무원인 블룸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는 아침을 먹었는데도 돼지 콩팥 요리가 먹고 싶어서 푸줏간에 다녀온다. 점심을 먹기 위해 버턴(Burton) 식당에 들어가지만 내키지 않아 데이비 번스(Davy Byrne's)에서 식사를 한다. 이처럼 주인공 블룸과 스티븐은 노동자 계층의 주요 관심사인 먹고 사는 문제와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기에 마르크스주의자의 비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리처드 엘먼(Richard Ellmann)이 주장하듯이 『울리시스』는 “프티 부르주아지(petty bourgeois)” 세계를 다루고 있고, 이 세계는 “조이스가 성장한 세계이다”(100). 따라서 하층 계층의 인물이나 그들의 치열한 삶은 작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조이스의 소설과 달리 계층 갈등은 루니 소설의 주된 주제이다. 루니는 마이클 놀란과의 인터뷰에서 “가톨릭교회의 권력이 쇠퇴하자, 자유시장이 이 권력을 거의 전적으로 대체하게 되었고,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가톨릭 이데올로기를 대신하게 된 것 같다”라고 말한다. 루니는 『노멀 피플』에서 21세기 아일랜드 자본주의 사회와 이 사회가 만든 경제적 불평등에 관심을 가진다. 리오가 주장하듯이, 이 소설은 ‘켈틱 타이거’로 대변되는 아일랜드 경제가 붕괴되는 시기를 다루고 있기에 “경제 불황은 계층의 양극화를 다시 초래”하였다(2). 작가는 이 소설의 두 주인공 코넬과 매리언을 상류층과 하류층 출신을 대변하는 인물로 설정하는데, 흥미롭게도 코넬의 어머니 로레인은 매리언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간다. 코넬의 친구인 롭(Rob)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에게 집요하게 질문한다.

“[매리언]이 널 자신의 집사로 생각하지, 그렇지?”

...

“아니, 그렇지 않아.” 코넬이 말했다.

“하지만 네 엄마는 그 애의 하녀잖아?”

“그냥 청소만 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가니까, 별로 마주칠 일도 없을걸.”

“매리언이 작은 종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네 엄마를 부르진 않겠지, 그렇지?” 롭이 말했다.

코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NP 23)

자신의 어머니를 매리언의 하녀로, 자신을 그녀의 집사로 생각하는 롭의 계속된 질의에 화가 난 코넬은 한순간 매리언과 절연하고 싶어 한다. 코넬의 어머니도 그녀의 아들과 매리언의 관계를 알고서 매리언의 어머니는 “우리를 한 수 아래 사람으로 볼 거야”라고 말한다(NP 51). 로레인의 이 말에 코넬은 “그러한 생각은 19세기적 사고방식”(NP 51)이라고 비웃지만, 계층의식이 가져오는 갈등은 코넬과 매리언의 관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코넬은 여름방학 동안 방세를 낼 돈이 없어서 매리언의 집에 기거하고자 한다. 그러나 코넬은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한 채 매리언과 헤어진다. 매리언은 코넬과 헤어진 후 상류층 자제인 제이미(Jamie)와 사귈다. 제이미의 아버지는 “경제위기를 초래한 사람 중의 한 명”(NP 124)으로 소개된다. 작품의 화자는 제이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이력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굳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제이미가 아일랜드 사회에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집안 출신임을 강조한다.

코넬은 공산주의 후보에 투표하고, 로레인은 그를 “멋진 사회주의 가치를 가지고 키웠다”라고 자랑한다(NP 47). 이러한 그들의 정치적 성향은 파출부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로레인의 영향이 크다. 비록 로레인이 그녀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지만, 그녀가 사회주의 가치를 신봉하고 있는 것은 계층적 갈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넬은 매리언에게 “『공산당 선언』(*The Communist Manifesto*)”을 읽어보라고 하는데(NP 13), 이는 코넬이 계층적 갈등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매리언은 슬라이고에서는 친구가 없고 인기도 없지만, 더블린에서는 “친구가 많고 행복하다”(NP 72). 반대로 코넬은 슬라이고에서는 친구가 많고, 더블린에서는 “외롭고 친구가 없다”(NP 73). 슬라이고에서 파티에 갈 때 코넬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정장처럼 보이는 셔츠”나 “가죽 신발”

이 없어서 “버튼이 있는 하얀 셔츠와 평상시에 신는 아디다스 신발”(NP 37)을 신지만,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도시인 더블린에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평가를 받고 친구 관계도 결정된다. 코넬은 더블린에선 매리앤이 “부잣집 출신이기에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한다(NP 88-89). 매리앤의 친구들은 “부친이 판사이거나 장관이고, 학비가 아주 비싼 고등학교를 나왔다”(99). 매리앤의 친구들은 부자로서 서로를 보살피 주는데, 코넬은 “매리앤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NP 99). 그녀 친구들의 도움으로 코넬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힘들지 않게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NP 99). 그렇지만 매리앤의 친구들은 계층의식을 지니고 있다. 매리앤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인 페기(Peggy)는 “일할 생각이 없다. 그녀는 핸드백과 비싼 마약을 사주고 싶어 하는 . . . 많은 남자를 만난다”(NP 84). 이런 페기이기에 그녀는 코넬에 대해 계층의식을 느낀다. 그녀는 코넬이 “보통 운동복”을 입고 다니고, “양복이 있는 지도 의문스럽다”라고 말한다(NP 85).

트리니티 대학에서 코넬과 매리앤 둘 다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게 된다. 출신 배경이 다른 두 사람에게 장학금의 의미도 다르다. 코넬은 장학금으로 “방세를 내고, 등록금이 해결되고, 대학에서 매일 공짜 식사를 하고, 여름의 절반을 유럽 여행을 하면서 보낼 수 있게 된다”(NP 159). 매리앤에게 장학금은 “자존심을 높이는 기제로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항상 믿어왔던 것을 확증”할 수 있게 한다(NP 159). 그녀에게 장학금은 “경제적인 실제적 문제이기보다는 개인의 감정의 문제”이다(NP 173). 매리앤이 코넬에게 “네가 [장학금]을 더 받을 자격이 있어”(NP 173)라는 말을 하자, 이 말에 코넬은 경제적 차이, 계층적 갈등을 의식하게 된다. 매리앤은 코넬이 “더 나은 학생이다”(NP 173)라는 취지의 말이라고 해명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만나게 된 계기가 된 코넬의 어머니가 매리앤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매리앤은 그녀의 어머니가 “좋은 고용주가 아니고, 임금도 많이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코넬도 “형편없는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불만을 토로한다(NP 173). 코넬과 매리앤의 관계를

통해서 작가는 21세기 아일랜드 사회의 계층 갈등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코넬이 강도를 만나 택시비도 없게 되어 매리언을 방문하는 장면에서 계층적 갈등이 표면화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코넬에게 일어났기에 계층적 차이에 주목하게 된다. 제이미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코넬이 당한 일을 들은 후, “하층민 쓰레기”(NP 145)라고 불쑥 말한다. 이에 하층민 출신인 코넬이 “모든 사람이 사립학교에 다닐 정도로 부자일 수 없잖아”라고 항의하자, 제이미가 “너의 돈을 빼앗은 자에 관해 말하고 있는 거야”(NP 145)라고 말하지만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제이미는 일전에 코넬을 “상스럽게 우유 마시는 촌놈”이라 불렀는데, 매리언도 코넬이 “우유 통에 입을 바로 대고 우유를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기에”(NP 149) 제이미의 말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니다. 더블린에서 부유한 아이들과 어울리는 매리언도 계층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코넬의 은 목걸이를 보고서, 폐기가 “아르고(Argos) 스타일”(NP 146)이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 이 말은 코넬의 목걸이가 싸구려 상점에서 구입한 저렴한 제품임을 의미한다.

이 소설은 21세기 아일랜드 사회에서 돈이 권력임을 보여준다. 코넬은 장학금을 통해 “외국의 도시, 유명한 예술작품, 지하철, 베를린 장벽의 잔해가 실제로 존재한다”(NP 160)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돈은 세상이 실제로 존재함”을 그에게 증명해 주었다(NP 160). 코넬은 더블린에 사는 사람들이 고등학교에서 알던 애들보다 더 나쁘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더블린 사람들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NP 217). 더블린에서 이러한 경험을 한 코넬은 먼 훗날에 매리언이 자신에게 “왜 자신과 결혼하지 않았는지” 질문한다면, “돈 때문이야”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NP 176).

코넬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슬라이고에 있는 코넬의 방에는 변화가 없다. “그의 방은 고등학교 시절과 똑같다. 스티븐 제라드 포스터의 한 모서리가 벽에서 떨어져

말려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다: 전등갓, 초록색 커튼, 줄무늬 테두리가 있는 베갯잇까지 모두 똑같다”(NP 223). 매리앤도 그의 방에는 “수년째 똑같은 전등갓”이 있고, 그 색깔은 “먼지 낀 초록색”이라고 인식한다 (NP 232). 특히, 코넬이 오래된 베갯잇을 사용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힘든 현실을 잘 보여준다. 로레인은 이제 매리앤의 집이 아니라 호텔에서 일한다. 그녀가 호텔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그녀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를 위해 꾸며진 그녀 집의 모습은 그녀의 경제적 상황을 암시한다. “텔레비전과 소파 사이에 크리스마스트리 가 꼭 찬”(NP 259) 느낌을 주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여전히 작은 집에 살고 있다.

매리앤과 그녀의 가족과의 화해는 없다. 매리앤이 앨런에게 구타를 당하고 코넬과 함께 집을 떠난 후에 그녀의 어머니 데니스(Denise)는 그녀와 연락을 끊는다. 그녀의 어머니는 매리앤이 “수치”(NP 258)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리앤이 코넬과 사귀기 때문임을 다음 장면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에 코넬의 어머니를 방문한 매리앤은 슈퍼마켓에서 그녀의 어머니를 보게 된다. 로레인이 “공손하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지만 데니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정면으로 향한 채 지나가 버린다”(NP 260). 이 장면을 통해 데니스는 매리앤이 자신의 가정부의 아들과 교제하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레인은 마을 사람들이 데니스를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데(NP 260), 이 작품 결말 부분에서 데니스는 유일하게 ‘노멀 피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계층 갈등 없이 친구 사이가 가능한 슬라이고리는 전통적인 사회에서 유효한 결론이다. 더블린이라는 대도시, 특히 매리앤이 친구로서 지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결론이 가능할 것이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21세기 아일랜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루니의 소설 『노멀 피플』을 20세기 초를 배경으로 한 조이스의 『율리시스』와 비교해서 알아보았다. 『노멀 피플』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21세기 아일랜드 사회를 이해하는데 적합한 작품이다. 아일랜드 사회는 인종/국가, 종교, 성적 정체성, 계층 등의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 세기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던 아일랜드가 1922년에 독립한 사실과 더불어, 독립 후에도 여전히 아일랜드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가톨릭교회 권력이 약해지면서 가능했다.

조이스는 영국과 가톨릭교회의 영향 하에서 아일랜드인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에도 고통받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노멀 피플』에서는 과거 역사나 아일랜드와 영국의 갈등 관계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은 차별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가해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거나 인종 차별에 대해 비판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다.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은 확연히 줄어들어 교회에 정기적으로 가는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가톨릭교회의 주요 교리인 낙태 반대는 “퇴보적인 정치적 견해”(NP 244)로 폄하된다.

조이스는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로 비판을 받았지만, 그가 제시한 성담론은 당시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동성연애는 『율리시스』에서 되풀이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지만,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묘사된다. 변태 성욕으로 규정되는 마조히즘 등은 불륜의 환상 속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노멀 피플』은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기존의 성정체성 개념에 도전한다. 매리앤이 실제로 마조히즘적 성향을 보이고 있기에 루니는 성적지향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쓰고 있다. 계층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도 조이스와 루니는 완전히 다르다. 하층 계층의 인물이나 그들의 치열한 삶은 조이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루니는 조이스와

달리, 상류층과 하류층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면서 갈등하는 양상을 주된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영국과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된 오늘날, 계층적·경제적 갈등이 아일랜드인의 주요 관심사임을 보여준다.

『노멀 피플』을 『올리시스』와 비교해 본 결과, 21세기 아일랜드 사회가 급변했음을 알 수 있다. 조이스가 20세기 초의 아일랜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루니는 변화하는 아일랜드 사회의 모습을 꼼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일랜드의 과거 역사에 여전히 얽매어 있는 현대 작가들이 많다는 점에서, 루니의 작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의 전형적인 아일랜드 문제에서 벗어나 현재 그대로의 아일랜드에 주목하는 것은,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루니의 작품이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것은 아일랜드 사회의 문제가 세계 다른 지역에서 경험하고 있거나 언젠가는 당면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루니는 조이스가 그러하듯이, 아일랜드 문제를 다루면서도 인류 공통의 관심사를 표현한 작가이다.

(고려대)

인용문헌

- Barry, Ellen. “Greeted as the First Great Millennial Author, and Wary of the Attention.” *The New York Times*, 31 Aug. 2018.
www.nytimes.com/2018/08/31/world/europe/sally-rooney-ireland.html.
 Accessed 06 Oct. 2024.
- Cain, Sian. “*Normal People*: How Sally Rooney’s Novel Became the Literary Phenomenon of the Decade.” *The Guardian*, 08 Jan. 2019.
www.theguardian.com/books/2019/jan/08/normal-people-sally-rooney-novel-literary-phenomenon-of-decade. Accessed 06 Oct. 2024.
- Charman, Helen. “Sally Rooney’s ‘Normal People.’” *The White Review*, Oct. 2018.
www.thewhitereview.org/reviews/sally-rooneys-normal-people.
 Accessed 06 Oct. 2024.
- Choi, Seokmoo. “Joyce’s Representation of Ireland as a Partner in the British Empire.” *Wenshan Review of Literature and Culture*, vol. 12, no. 2, 2019, pp. 139-63.
- Clanchy, Kate. “*Normal People* by Sally Rooney Review—A Future Classic.” *The Guardian*, 01 Sep. 2018.
www.theguardian.com/books/2018/sep/01/normal-people-sally-rooney-review. Accessed 06 Oct. 2024.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2nd ed., Oxford UP, 1982.
- Jordan, Justine. “A New Irish Literary Boom: The Post-crash Stars of Fiction.” *The Guardian*, 17 Oct. 2015.
www.theguardian.com/books/2015/oct/17/new-irish-literary-boom-post-crash-stars-fiction. Accessed 28 Sep. 2024.
- Jordan, M. “Anti-Heterosexist Education and the Stigmatization of Some Roman Catholic Beliefs.” *Philosophical Inquiry in Education*, vol. 25,

- no. 1, 2018, pp. 88-95.
- Joyce, James. *Dubliners*. Penguin Books, 2000.
- . *Ulysses*,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Penguin Books, 1986.
- Mendía, Sofia Alférez. "The Continuum of Irish Female Sexuality in Sally Rooney's *Conversations with Friends* and *Normal People*: A Contradicted Ireland." *Estudios Irlandeses*, Issue 18, 2023, pp. 148-60.
- Nolan, Michael. "An Interview with Sally Rooney." *The Tangerine*, Issue 3, 2017.
<https://thetangerinemagazine.com/print/interview-sally-rooney>. Accessed 06 Oct. 2024.
- Pierini, Francesca. "Sharing the Same Soil: Sally Rooney's *Normal People* and the Coming-of-Age Romance." *Prospero: Rivista di letteratura e culture straniere*, no. 26, 2021, pp. 145-70.
- Power, Arthur. *Conversations with James Joyce*. Millington Books, 1974.
- Rabaté, Jean-Michel. "On Joycean and Wildean Sodomy." *Quare Joyce*, U of Michigan P, 2001, pp. 35-44.
- Río, María Amor Barros-del. "Sally Rooney's *Normal People*: the Millennial Novel of Formation in Recessary Ireland." *Irish Studies Review*, vol. 30, no. 2, 2022, pp. 176-92.
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9670882.2022.2080036. Accessed 06 Oct. 2024.
- Rooney, Sally. *Normal People*. Faber & Faber, 2018. Abbreviated as *NP*.
- Segall, Jeffrey. "Between Marxism and Modernism; Or, How to Be a Revolutionist and Still Love *Ulysses*." *JJQ*, vol. 25, no. 4, 1988, pp. 421-44.
- Trevor, William. "Men of Ireland." *Selected Stories*, Penguin Books, 2011, pp. 458-68.

AbstractMajor Transformations in 21st-Century Irish Society as Reflected in
Normal People – A Comparison with Joyce

Seokmoo Choi

This paper explores the transformation of 21st-century Irish society by comparing Sally Rooney's *Normal People* with James Joyce's *Ulysses*, set in the early 20th century. Covering events from 2011 to 2015, *Normal People* offers valuable insights into modern Irish life.

Joyce highlights the suffering of the Irish people under British rule and the Catholic Church's influence. By contrast, *Normal People* makes no mention of historical conflicts between Ireland and Britain. The Catholic Church's influence has clearly waned; characters rarely attend church, and core doctrines, like opposition to abortion, are dismissed as "regressive political views." Although Joyce faced criticism for his explicit portrayal of sexual themes, his approach stayed within what was socially acceptable at the time. Homosexuality and masochism, for instance, are depicted as deviant behaviors. In *Normal People*, however, a broader spectrum of sexual orientations and preferences is portrayed, with homosexuality and masochistic tendencies recognized as personal choices. The two authors also take distinctly different approaches to class issues. For Joyce, the struggles of the lower class are not a central theme. In contrast, Rooney focuses on both upper- and lower-class characters, highlighting the conflicts that arise from their different backgrounds and life experiences.

Many contemporary Irish writers remain deeply connected to Ireland's historical narrative, but Rooney's work marks a significant shift. By focusing

on contemporary issues, she suggests that current and future challenges now carry more weight than past grievances in Irish literature.

■ **Key words**: James Joyce, Sally Rooney, *Ulysses*, *Normal People*, social change, Ireland

(제임스 조이스, 샬리 루니, 『율리시스』, 『노멀 피플』, 사회변화, 아일랜드)

논문접수: 2024년 11월 7일

논문심사: 2024년 11월 7일

게재확정: 2024년 11월 22일